



8월 5주차 |

# 주간 인도네시아

## 시장 동향 및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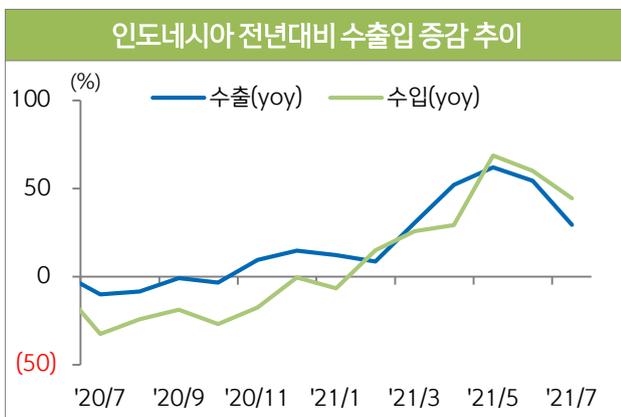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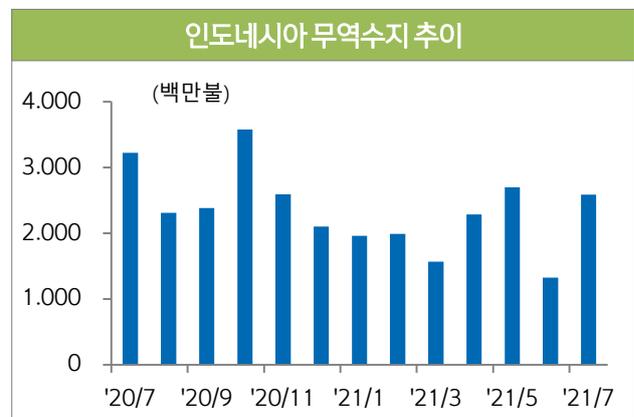
## 인도네시아 경제 및 금융시장 이슈

### ❖ 7월 인도네시아 수출입. 코로나19 델타변이 와중에도 양호한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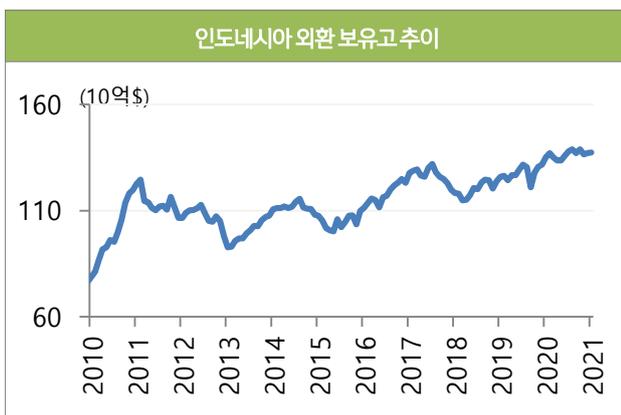
- ▶ 인도네시아의 7월 수출은 전년대비 +29.3%, 수입은 전년대비 +44.4%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7월 내내 코로나19 확진자수 증가에 따라 대규모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였던 것으로 인해 기업 활동이 감소하는 등 우려가 있었지만 수출입은 여전히 양호한 흐름을 기록하였음.** 지난해 7월 수출 전년대비 -10.16%, 수입 -32.57%의 기저효과의 영향도 있었지만 기저효과를 제외하더라도 전월 대비 수출입 감소가 크지는 않았음.
- ▶ **7월 무역수지는 25.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15개월 연속으로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면서 연초대비 누적 144.2억 달러 흑자를 기록.** 양호한 무역 수지에 힘입어 7월 외환 보유고도 1,373억 달러까지 증가하였으며, 발표된 2분기 경상수지도 GDP대비 -0.77% 적자를 기록.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해외 관광객이 급감한 영향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2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지만 적자 폭은 지난 5년과 비교할 때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통제 조치에 힘입어 최근 신규 확진자수는 1만명 대로 줄어들었음. 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나서고 있는 상황.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한 사람의수도 누적 8,9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9월 이후의 인도네시아 무역 부문의 성과는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美 연준이 테이퍼링 스케줄을 발표하고 테이퍼링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경기 개선에 힘입은 원자재 수요 지속으로 무역수지 흑자가 이어지면서 2013년과 같은 테이퍼 탠트럼 우려를 낮춰줄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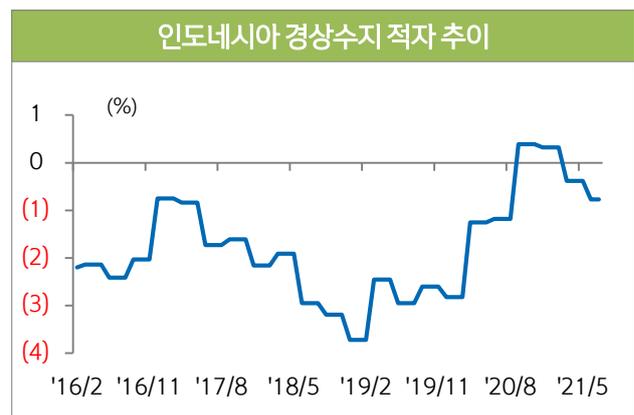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 주간 이머징 증시 동향

| 구분  | 주가지수   | 8.27      | 8.20      | 전주대비(%) | 전년말대비(%) | 1년 최저치                 | 1년 최고치                 |
|-----|--------|-----------|-----------|---------|----------|------------------------|------------------------|
| 베트남 | VN     | 1,313.20  | 1,329.43  | ↓ -1.22 | ↑ 18.96  | 874.71<br>'20/08/27    | 1,420.27<br>'21/07/02  |
| 인니  | 자카르타종합 | 6,041.37  | 6,030.77  | ↑ 0.18  | ↑ 1.04   | 4,842.76<br>'20/09/24  | 6,435.21<br>'21/01/13  |
| 인도  | SENSEX | 56,124.72 | 55,329.32 | ↑ 1.44  | ↑ 17.54  | 36,553.60<br>'20/09/24 | 56,124.72<br>'21/08/27 |
| 중국  | 상해종합   | 3,522.16  | 3,427.33  | ↑ 2.77  | ↑ 1.41   | 3,217.54<br>'20/09/28  | 3,696.17<br>'21/02/19  |
|     | 심천종합   | 2,439.69  | 2,388.96  | ↑ 2.12  | ↑ 4.74   | 2,126.88<br>'20/09/28  | 2,503.85<br>'21/07/22  |
| 홍콩  | H      | 8,957.81  | 8,742.44  | ↑ 2.46  | ↓ -16.58 | 8,742.44<br>'21/08/20  | 12,228.63<br>'21/02/17 |
|     | 항셱     | 25,407.89 | 24,849.72 | ↑ 2.25  | ↓ -6.70  | 23,235.42<br>'20/09/25 | 31,084.94<br>'21/02/17 |
| 한국  | KOSPI  | 3,133.90  | 3,060.51  | ↑ 2.40  | ↑ 9.06   | 2,267.15<br>'20/10/30  | 3,305.21<br>'21/07/06  |



## 주간 이머징 국채 금리(10Y) 동향

| 구분    | 8.27 | 8.20 | 전주대비(bp) | 전년말대비(bp) | 1년 최저치            | 1년 최고치            |
|-------|------|------|----------|-----------|-------------------|-------------------|
| 베트남   | 2.12 | 2.10 | ↑ 1.80   | ↓ -46.00  | 2.15<br>'21/08/16 | 2.80<br>'20/09/28 |
| 인도네시아 | 6.17 | 6.37 | ↓ -20.00 | ↑ 28.40   | 5.89<br>'20/12/30 | 6.98<br>'20/09/10 |
| 인도    | 6.26 | 6.23 | ↑ 2.10   | ↑ 39.00   | 5.82<br>'20/12/04 | 6.26<br>'21/08/27 |
| 중국    | 2.87 | 2.85 | ↑ 2.50   | ↓ -27.30  | 2.82<br>'21/08/06 | 3.36<br>'20/11/19 |
| 한국    | 1.94 | 1.85 | ↑ 8.50   | ↑ 21.50   | 1.42<br>'20/08/27 | 2.20<br>'21/06/02 |



## 주간 이머징 환율 동향

| 구분           | 8.27      | 8.20      | 전주대비(%) | 전년말대비(%) | 1년 최저치                 | 1년 최고치                 |
|--------------|-----------|-----------|---------|----------|------------------------|------------------------|
| 달러-동 (VND)   | 22,780.00 | 22,818.00 | ↓ -0.17 | ↓ -1.38  | 22,780.00<br>'21/08/27 | 23,206.00<br>'20/10/06 |
| 달러-루피아 (IDR) | 14,418.00 | 14,453.00 | ↓ -0.24 | ↑ 2.62   | 13,895.00<br>'21/01/04 | 14,900.00<br>'20/09/28 |
| 달러-루피 (INR)  | 73.69     | 74.39     | ↓ -0.95 | ↑ 0.85   | 72.33<br>'21/02/24     | 75.46<br>'21/04/21     |
| 달러-위안 (CNY)  | 6.47      | 6.50      | ↓ -0.45 | ↓ -0.85  | 6.37<br>'21/05/28      | 6.89<br>'20/08/27      |
| 달러-원 (KRW)   | 1,169.08  | 1,179.55  | ↓ -0.89 | ↑ 7.60   | 1,081.81<br>'20/12/04  | 1,189.74<br>'20/09/04  |

# 주요 뉴스





## 재무부, 정부의 2022년 재정 지출 중점 과제 발표



### ❖ 요약 및 시사점

2022년 인도네시아 정부 예산은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 모멘텀을 살려내는 것을 중점 과제로 하면서 코로나19 이전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 같이 인적 자원의 개발 및 핵심 인프라 구축 지원에도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음. 2022년 인도네시아 재정적자는 GDP대비 4.85% 수준으로 2023년에는 연간 재정적자 목표 달성 위한 연착륙을 도모

- 재무 장관은 2022년 국가 예산안 초안에서 중앙정부의 1,938.3조 루피아 수준의 재정 지출에서 중점 사항들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하였음. 중앙 정부의 지출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496.3조 루피아에서 1,927조 루피아로 연평균 13.5%씩 증가하였다고 말하면서, 최근 2년간의 중앙 정부의 지출 확대는 코로나19 대응 및 공적 부조 확대에 기인하며, 사람들이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들을 통해서 코로나19 극복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고 설명하였음.
- 2022년의 국가 예산 지출은 정상화를 위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예산 지출의 방향은 교육을 통한 인적 자원 개발, 보건 및 사회 보호 부문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결성과 ICT 산업의 발전이 인프라에서 우선 산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 내년 중앙 정부 지출의 핵심은 보건, 사회 보호, 교육 부문에서의 구조 개혁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하면서, 내년에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재정 적자 목표를 넘어선 운영을 하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재정 적자 목표 수준을 달성해나가기 위한 점진적 적응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하였음. 2022년은 2023년에 재정 건전성 수준을 회복하기 위한 연착륙 전환 기간이라고 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 예산과 관련한 재정 위험 관리와 함께 보다 더 정확한 보조금 수급 방안을 마련하면서 예산을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음.
- 2022년 예산안에서 중앙 정부의 지출은 전략적 인프라 건설 및 IT 기술의 도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일하는 방식의 도입 등을 지원하는 것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였음.
- 한편, 장관은 인도네시아 은행 산업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신용 공급을 충분히 해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재정 예산이 지속 가능한 회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재정 예산이 주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회복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 재정 예산의 주요 목표라고 하였음.
- 2022년 재정 적자는 GDP대비 4.85% 수준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적자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 정부 사이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맺은 협정에 따라서 중앙은행이 적자 국채를 인수하는 등 지원 조치를 하는 것을 통해 240조 루피아를 담당하면서 소화해낼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출처 : Antara News)



## 인도네시아 산업부, 2022년 3대 우선 과제 강조



###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산업부에서는 2022년 산업부 예산의 핵심 과제로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도입, 국가 역량 및 산업 부문 역량 평가 표준안 마련, 산업별 4차 산업혁명 및 Making Indonesia 4.0 추진, 녹색 및 순환 경제로의 이해 등의 과제를 선정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산업부 장관은 의회에서의 예산안 관련 발표 자리에서 2.61조 루피아 수준의 2022년 산업부 직접 예산에서 3대 최우선 프로그램에 대해서 발표하였음. 최우선 과제에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부가가치 및 산업 경쟁력 증진 프로그램 및 경영 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발표하였음. 인건비 지출로 7,970억 루피아 운영 자금으로 3,602억 루피아, 운영외 지출로 1.45조 루피아가 배정되어 있으며, 9,820억 루피아가 교육 관련 기능, 1.62조 루피아가 경제 부문에 할당되어 있음.
- 장관은 직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산업 인적 자원 개발 위원회(BPSMI)에 의해서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해당 프로그램은 훈련, 인증, 배치라는 3 in 1 훈련 시스템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제조업 부문 국가 고용 경쟁력 표준, 고급 인력 인증, 경쟁력 있는 산업 현장 훈련의 형태로 초안이 구성되어 있으며, 4차 산업 혁명에 걸 맞는 인재를 육성하고, 인도네시아 디지털 산업 센터(PIDI) 4.0에 관련 훈련 장비를 배치하고 운영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음
- 산업부는 핵심 산업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 창출 및 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위해 관련 산업국에서 지원을 수행할 예정임.
- 농업국에서는 산업용 식물유에 기반한 그린 연료 산업에 대해 파일럿 공장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지원할 예정이며, 어업 및 수산업 관련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수산물 가공과 관련한 산업 지원 방향을 밝혔음.
- 화학/제약/섬유국(IKFT)에서는 Bintuni만 석유화학 단지의 조성 및 육성과 함께 섬유/의류 산업에서의 4차 산업 혁명 적용 지원, 화학 산업에서 제약 산업으로의 부가가치 확장, 시멘트 및 세라믹 가공과 관련한 산업 육성 방향을 내세웠음.
- 기계/금속/전기전자국(ILMATE)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전자제품 생산 구조 강화 및 국내 철강 설비 확대, 의료기기 관련 개발 지원 및 차량 제조 산업에서의 4차 산업 혁명 적용 지원을 방향으로 잡았음.
- 중소기업국(KMA)에서는 창업 지원 및 기술 훈련 개발 지원 등을 통해서 새로운 중소기업 창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으로 중소기업들의 제품 인증 적용 및 중소기업들의 기계설비, 자동화 적용 등의 지원을 방향으로 잡았음.

(뒷면 계속)

- ▶ 국제산업협력지원국(KPAII)에서는 인도네시아가 국제 협정을 맺는데 있어 주요 협상 안건을 준비하고 협력 국가와의 산업 자원 협력 가능성을 지원 및 모색하는 한편, 다국적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지원하고 자바 이외의 지역권에서의 산업 단지 개발 및 할랄 산업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 표준 및 산업 정책위원회(BSKII)에서는 산업 기술 증진 파트너십 펀드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 기술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4차 산업 혁명 생태계 조성을 통해서 전반적인 산업 분야의 4차 산업 전환을 도모하는 한편, 순환 경제 구조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한 정책 지원을 2022년 정책 목표로 하고 있음. 여기에 인도네시아 국가 산업 표준안을 준비하고, 녹색 산업 인증 및 녹색 산업 표준안 마련을 통해서 인도네시아의 산업 표준에 탄소 중립과 관련한 사항들을 반영해 나갈 예정임.
- ▶ 각 담당 국들에서 수행되는 지원 사업과 별개로 산업부 사무국에서는 산업 관련 규제 사항들을 재점검하고, 4차 산업 혁명과 관련한 경쟁력 있는 인적 자원의 개발 방향과 Making Indonesia 4.0 프로그램 이행 과정을 평가하고 독려하면서 4차 산업 혁명을 위한 데이터 및 정보처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내 산업 역량 평가 표준안을 마련하는 것을 담당하기로 하였음.



## 주택부, 인프라 건설용 예산 100.59조 루피아 설정



###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주택부에는 인프라 관련으로 100.59조 루피아가 배정됨. 코로나19로 인해 지연되었던 인프라 건설의 가속화 및 수도, 도로, 주택 건설 등 인력 투입이 많은 고용 효과가 큰 인프라 사업들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임

- 공공 주택부 장관은 2022년 국가 예산에서 인프라 건설 지속을 위해 100.59조 루피아의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밝혔음. 이번 인프라 관련 예산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2022년 계획에서 국가 경제 회복 및 구조 개혁을 위한 7대 우선 과제의 하나라고 하였음.
- 41.23조 루피아가 수자원국에 배정되었으며, 도로 건설국에 39.7조 루피아, 빌딩 건설에 12.51조 루피아, 주택 건설에 5조 루피아, 건설 개발에 6천억 루피아 등이 배정되었음.
- 공공 주택부의 인프라 금융 예산에 1,975억 루피아가 배정되었으며, 지방 인프라 개발 위원회에 2,128억 루피아, 인적 자원 개발 위원회에 4,000억 루피아가 배정되었음.
- 내년 인프라 개발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연되었던 인프라 프로젝트의 완성 및 국가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결과 도출에 주로 사용될 예정임. 예산의 집행은 정부 및 비정부 기구, 지방 정부 및 국영기업, 공공서비스 위원회 및 민간 부문을 통해서 집행될 예정임.



## 재무부, 2022년에도 세수 수입 증진을 위한 개혁을 지속할 것



###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정부는 매년 부진한 세수수입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세원 확대 및 징수 체계의 디지털화 등 시스템 개선을 통해 세수 수입을 확충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음. 매년 관련된 내용이 발표되고 있지만 실천적인 방안보다는 구체성 없는 선언에 그칠 수 있음

- 재무장관은 2022년 국가 예산에서 세수 수입 목표인 1,262.9조 루피아의 달성을 위한 세제 개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세수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징세 행정 절차 강화, 인적 자원 강화 및 ICT 기술 도입 등을 통해 세제 개혁을 지속해간다는 방향임.
- 올해 세수 수입은 2021년에 주기적인 지출(VAT) 감독에 따른 세수 수입 기술적 반등의 영향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10.7% 증가한 680.9조 루피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2022년에는 세수 수입이 세원 확대와 세금 관련 관리 감독 강화 및 성장률의 회복 등에 힘입어서 늘어날 수 있다고 장관은 발표하였음. 부가세 수입이 10.1% 증가한 552.3조 루피아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것은 2021년에 성장률이 2020년의 코로나19 피해에서 정상화되면서 부가세 수입이 늘어난 것임
- 한편, 내년 세금 정책은 교육 활동 및 납세 서비스 증진을 통해서 납세 이행을 강화하는 방식을 통해 세원을 확대하는 계획을 담고 있음. 투자 환경 및 사업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세금 납부 채널을 늘리고, 납세자들의 이행을 높이기 위한 공정 법의 강화 등 창의적인 잠재 세수 발굴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하였음.
- 개발 자금 마련 등을 위해서 건전하고 공정한 납세 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세제 개혁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였음. 높은 부가가치를 내는 부문 및 고용 공헌도가 큰 부문에 초점을 둔 세제 혜택 제공 등 정책 개혁을 하면서도 측정 가능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하였음. 인도네시아에서 더 많은 사람이 소득세를 내고, 중산층이 늘어나서 납세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세수 확대의 방향임



## 2025년 인도네시아 디지털 시장 잠재규모가 1,240억 달러 수준이 될 것



###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는 인도네시아의 거대 인구가 점차 전자상거래 사용을 늘리면서 2025년 잠재 규모가 1,240억 달러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중소기업들이 시장을 충분히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지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디지털 시장의 잠재 규모가 2025년까지 1,240억 달러(1,700조 루피아)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의 중소기업 담당 국장이 발표하였음. 이러한 전자상거래 규모는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가장 많은 전자상거래 잠재 이용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 것임.
- 무역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거래 규모는 266조 루피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2분기까지 186.8조 루피아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성장세를 감안할 때 2021년에는 400조 루피아의 거래 규모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중소기업들이 점차 디지털 생태계에 참여하면서 전체 중소기업의 23.9%인 1,530개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중소기업부의 조사에서는 나타났음.
- 중소기업부는 이러한 참여 확대에도 불구하고 소기업들은 불공정한 사업 경쟁, 사이버 보안 위협, 디지털 문맹 및 ICT 기술 부족 등으로 인해서 수입산에 이러한 시장을 뺏기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중소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디지털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무료 사업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및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서 중소기업 사업자들이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중소기업부는 중소기업 마케팅 서비스 위원회의 브랜드인 SMESCO를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제품을 Sparc Trade에 전시하고, BNI Xpora를 통해서 수출 지원을 받으며, Sparc Campus를 통해서 협력 기업 및 동반자를 구하고, 다양한 중소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준비하고 있음. SMESCO에서는 풀필먼트 센터, 제조 공유, 클라우드 주방 및 SMESCO가 제공하는 Siren.id 플랫폼을 이용하여 물류 혁신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공할 계획임.



## 정부와 의회, 전자상거래 법안 도입 협의



###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정부와 의회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ASEAN 협정 내용을 반영하는 전자상거래 법안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회가 요청한 보안 사항 및 관련 법령 정비 내용을 반영하여 조만간 의회에서 법안 통과를 진행할 예정임

- 인도네시아 정부와 의회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ASEAN 협정관련 법안을 가까운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협의하였음. 각 의회 분과 위원회의 최종 검토를 거친 이후에 의회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한 동의안 처리에 대해서 합의하였고 조만간 법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의장이 말하였음.
- 정부측에서는 무역부 장관이 의회 의원들의 건설적인 분과 토론을 통해서 긍정적인 결론을 얻어냈다고 의회에 감사를 표하였음. 무역부 장관은 1차 숙의 기간 동안에 정부가 다양한 정책 및 규정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필요 사항들을 의회에서 검토해주었고 전자 상거래의 발전과 관련한 고용 프로그램 마련, 소비자 보호, 물류 비용 및 건전 경쟁, 데이터 보호 등의 부수 법안 필요성 등을 검토해주면서 완결성이 높아질 수 있었다고 의회에 감사를 표하였음. 정부는 이러한 의회의 제안 사항들을 반영하여 관계 법령들의 정비를 준비할 예정이며, 전자 상거래 관련 법안 통과를 통해 인도네시아 국가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음.



## 재무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3,461조 루피아가 필요하다고 발표



### ❖ 요약 및 시사점

재무 장관은 기후 변화 관련 포럼에서 인도네시아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이 매우 크며, 이를 국가 예산만으로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내외 민간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이와 관련한 내용이 기존 옴니버스 법안에 세금 감면, 면제 등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였음

- 재무장관은 인도네시아가 2030년까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이 3,461조 루피아(2,660억 달러) 수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발표하였음. 이것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206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의 단지 21%에 불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인도네시아 정부 예산만으로는 기후 변화 달성이 어렵다고 밝히면서, 민간 부문에서의 탄소 중립을 위한 투자 및 지원이 국내 및 글로벌 투자자로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하였음. 이를 위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문인 조림 사업, 에너지, 수송 부문, 폐기물, 농업 및 제조업 부문이 탄소 배출 감소 목표를 달성해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
- 재무 장관은 옴니버스법안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기후 변화 대응 투자와 관련한 내용들도 함께 변경되었다면서 지속 가능 개발을 위한 기술 개발 및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 사항들이 옴니버스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였음. 세금 면제, 세금 감면, 그린 프로젝트와 관련한 부가가치 세금 우대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음.
- 한편 재무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5개 산업 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음. 조림 사업 부문은 인도네시아의 탄소 배출을 17% 정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에너지 및 수송 산업은 11%를 가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폐기물, 농업, 제조업 부문은 각각 0.38%, 0.32%, 0.1%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였음.



##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이 은행시스템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



###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에서는 디지털 루피아화 도입을 통해 경제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디지털 루피아화를 도입할 경우 기존 은행시스템의 붕괴 및 기능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으며 단순히 화폐 뿐만 아니라 관련한 정부 인프라 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 중앙은행의 홍보 담당 임원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도입이 현재의 은행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의 도입을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기술적으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가상화폐형태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대중들에게 직접 사용된다면 상업은행 시스템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 ▶ 그러나, 디지털화가 점점 강화된다면,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현재 기존 은행 시스템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디지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화폐가 도입되기 전에 정부는 우선 종이와 동전형태로 물리적인 현재 화폐의 사용에 대해서 운영 방향을 갖춰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관계 부처들이 화폐의 디지털 화와 관련한 국가 전략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하였다.
- ▶ 그러면서도 중앙은행은 시중 은행 시스템으로 하여금 민간이 디지털 화폐를 창출하도록 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은행이 통화 창출의 디지털화 기능을 하면서 현재의 은행 시스템으로 하여금 수신 및 자금 유통 기능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디지털 루피아화의 도입이 인도네시아 경제의 효율을 높여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중앙은행 총재도 이전에 밝힌 바 있음. 디지털 블록체인 기술과 분산형 렛저 기술(DLT)를 통해서 자금 중개 및 결제 기능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총재가 밝힌 바 있음. 그러면서도 기술 및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리스크도 여전히 고려 사항이라고 하였다.